

에필로그

‘우리엄마’는 학교가는 길, 학교 안, 학교 밖에서도 전남학교와 학생을 지켜주셨습니다. 전남교육은 그분들의 인생을 머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전남교육은 학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교육을 멈추지 않았고 학교는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국토의 최서남단 가거도와 학생이 1명 있는 거차도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5살 아이가 살고있는 금호도에는 이 아이를 6년째 기다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남교육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한결같이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랑스러움을 기억하며 이제는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진정한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밖 큰길 등대 우리엄마

전남은 본섬, 부속 섬, 그 부속 섬의 작은 섬에도 학교가 있다.

전남 섬의 학부모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했다. 그분들은 그 섬을 지키며, 전남교육의 “등대”가 되어 주신다.



우이도



중태도



소악도



도초도

우이도에서 온 편지 故문채옥

호롱불 아래 섬 떠난 자식을 향한 3대의 편지



故문채옥님의 가족은 섬의 유일한 연락 수단이었던 편지를 통해 소식을 주고 받았다. 농사일과 바닷일을 마친 저녁, 벽장 앞 호롱불 아래에서 편지를 읽고 편지를 썼다. 섬의 유일한 연락 수단이었던 편지를 통해 소식을 주고 받았다. 육지 떠난 자식을 향한 애절한 심정과 몇 십년간 그 편지를 고이 간직해 온 부모의 마음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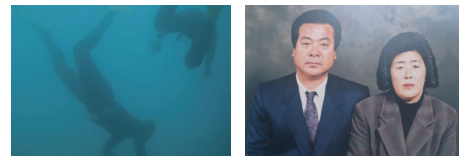


중태도 2대 해녀 김진섭

저승의 돈 벌어다 이승의 자식을 키운다



중태도에 사는 김진섭님은 공부가 늘 인생의 한이었다. 그래서 자녀를 공부시키겠다는 목표로 두 아들을 큰형님께 맡겼고, “엄마 나도 데려가요” 울면서 달려온 아들들을 가슴에 묻고, 끊어질듯한 숨을 참으며 악착같이 전복을 댔다. 그렇게 네 자녀를 키웠다. 김진섭님은 꿈이 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다면, 아무 것도 안하고 공부만 원없이 해보고 싶소”



학교를 지키는 소악도 김양운

섬에 학교가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못살아요



소악도에는 소악분교가 있다. 김양운님은 아들 현우가 전교생 1명이 된 2004년부터 외손주까지 소악분교를 보내며 20년간 학교를 지켜왔다. 김양운님은 “섬과 육지의 폐교 정책은 달라야 합니다. 섬에 학교가 없으면 아이도 부모도 살수가 없어요”라며 폐교를 반대해 소악분교는 6년째 휴교 상태이다. 육지에 살다 소악도로 돌아온 아들 현우는 아버지께 김양식을 배우고 기부카페 쉬랑계를 운영하며 매년 섬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한다. 김양운님은 아들 현우의 아이가 소악분교에 입학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도초도로 다시 온 도초초 교감 최선

마을과 학교가 키운 도초 5돌이 교사가 되어 다시 도초로



최선웅님의 다섯 아들은 도초도에서 태어나 도초도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도초도는 학원과 도서관이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밤12시까지 신안 교육방송 안테나를 돌려가며 녹화해 보여줬고, 어머니는 마을회관에 독서실과 책방을 만들었다. 다섯 번째 아들 최선이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는데 그 자리를 마을주민과 선생님들이 채워주셨다. 그 마음을 보답하고 싶어 교사가 됐고, 도초 발령을 지원했다. 최선은 교감이 돼서 다시 도초로 왔다. “내가 받았던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어요. 그게 내가 다시 도초도로 온 이유입니다.”



전남교육이 걸어온 길에 “우리 엄마”가 있었네



- 기획 전시 2025. 6. 23.(월) ~ 7. 4.(금) 전라남도교육청
- 순회 전시 2025. 7. 7.(월) ~ 7. 31.(목)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 순회 전시 2025. 8. 4.(월) ~ 8. 29.(금) 신안군청



초 / 대 / 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전남교육의 동반자이신 교육공동체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만감이 교차 되어 흘러오듯,
전남교육의 시간도 우리 모두의 간절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학교는
전남도민의 수많은 역사와 기억을 보듬고 있습니다.
진섭이는 학교를 먼발치에서 보기만 했고,
숙현이는 엄마의 노젓는 배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선이는 섬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다시 그 학교로 왔고,
옥심이는 68살인 지금 학교에 다닙니다.
그분들의 삶 속에는
진섭이를 아버지 몰래 학교 보내고 싶었던 엄마,
밤마다 밧줄로 노젓는 연습을 하던 엄마,
섬에 없는 도서관을 만든 엄마,
학교 가고 싶단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삶을 살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을 머금고 전남교육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그분들의 인생이
전남교육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이야기로 담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남교육의 한 시절을 덩달히 지켜오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교육감 김 대 중

찬란한 봄의 서사 엄마와의 봄

엄마! 아빠!
그 이름만으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아!
존재만으로 자녀는 부모의 자랑스러운 보물입니다.
부모님의 자녀로,
인생을 동행하는 배우자로, 내 자녀의 부모로, 내 손주의 조부모로
우리는 인생의 봄을 맞이합니다.
그 인생의 봄을 걸었던 당신의 찬란한 삶을 기억합니다.



나의 첫 번째 봄에 엄마는 나의 우주였고,
나의 열다섯 번째 봄에 엄마는 그저 귀찮음이었다.
내 아이의 첫 번째 봄에 엄마는 나의 눈물샘이 되었고,
내 아이의 열다섯 번째 봄에 엄마의 인생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엄마는 마지막 봄을 맞이했다.
엄마의 마지막 봄은 나에게 그리움이 되었다.



학교가는 길 슈퍼맨 우리엄마

전남의 학교가는 길에는
3만 4천리 바닷길을 노 젓는 어머니,
갯벌에 도로를 만든 아버지,

매일 아침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책임지는 부모님이
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전남의 학생들을 지켜주신다.

여수 가장도 어머니 뱃길

3만 4천리 학교가는 바닷길 어머니의 나룻배로 입학에서 졸업까지_ 숙현 어머니 故박승이님



여수 가장도에는 숙현이의 "엄마" 소리에 바닷길을 달려오는 故 박승이님이 있었다. 어머니는 숙현이를 학교보내기 위해 매일 2시간씩 6년간 3만 4천리 바닷길을 노를 저었다. 모정의 뱃길은 자녀들에게 지금도 사랑으로 전달되고 있다.

신안 기점·소악도 아버지 노돛길

학교가는 갯벌 징검다리 길 시멘트길이 되기까지_ 총열 아버지 조범석님



신안 증도 기점·소악도·병풍도의 섬과 섬 사이에는 썰물 때만 바다에서 길로 변하는 노돛길이 있다. 기점에 사는 총열이가 학교를 가려면 노돛길을 건너야 했다. 그래서 부모님은 징검다리 돌을 놓았고 군청에 요청해 시멘트 노돛길을 만들었다.

학교 앞 안전구역! 녹색어머니회

매일 아침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 봉사하시는 학부모님이 있다.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6월 출범했고, 현재 2025년 기준 전남 초등학교
426개 학교 중 85개의 학교 970명의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다.



학교 속 안길 참여자 우리엄마

학교 안에도 우리엄마가 있다.

학교가 필요한 모든 순간에 전남의 학부모님은 학교로 발걸음을
돌렸다. 1945년 학교 후원회부터 현재 운영위원회까지 전남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교육공동체의 첫 번째 후원자로서 늘 한결같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전남교육역사 속 학부모님

